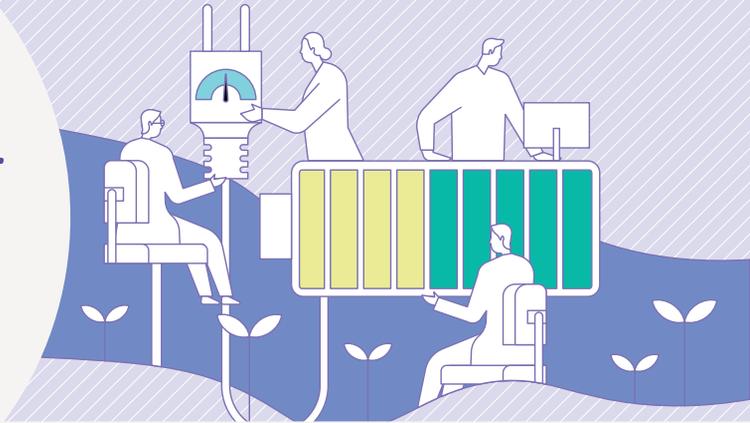


전라북도 내 균형발전을 위한 5권 5축 특화전략 구상

이성재_ 연구위원 지역개발연구부
한국환_ 전문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 본 정책브리핑은 전북연구원 정책과제로 수행한
'전라북도 내 균형발전을 위한 5권 5축 특화전략 구상'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역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간 발전격차 및 불균형 심화 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균형발전을 국정목표 및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관련 제도 개선 등 균형발전정책을 강조하였다. '18년 2월에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통해 '지역이 강한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북은 제4차 전라북도 균형발전계획에서 '아름다운山河, 웅비하는 천년 전북'의 비전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전략으로 5권 5축 설정하였다. 전라북도 시군이 보유한 특화자원,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전라북도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5권 5축에 대한 자원분석과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특화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권역별 특화전략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균형발전 정책과 전북의 여건

균형발전 개념 및 전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은 발전 기회의 균등과 자립적 발전역량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균형발전은 초기에 낙후지역의 정책적 고려를 우선시한 총량적 측면의 자원 재배치에서 최근에는 성장을 통한 상생발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총량적 측면의 자원 재배치는 전통적인 개념으로 지역의 인구, 산업, SOC 등 지역 내 여러 자원들을 재배치시켜 국가 또는 지역 성장의 총량을 제고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자원의 재분배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제기된 성장 기반의 균형발전은 공간경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들이 설득력을 얻게 되고, 공간경제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한 혁신클러스터가 경쟁력 창출의 원천임이 강조되었다. 이후 공간경제에 대한 논의에 이어 특정지역의 단기적 성장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생발전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혁신에 기반한 성장과 수도권권과 비수도권,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등 상생발전 외에도 낙후지역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균형발전의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였다.

균형발전 정책 평가

노무현 정부(2003~2007) 시기에는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토 측면의 공간적 분산 정책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를 도입하여 지역간 불균형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에 집중하여 이전기관 직원의 삶의 질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 정책은 다소 미흡하였다.

이명박 정부(2008~2012) 시기에는 초광역권·5+2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에 기반한 공간정책으로 분산·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시도 경계를 탈피하여 광역적인 현안 해결 및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였으나 세종시 수정안(정부기관이 아닌 대학과 연구소 이전) 논란, 수도권규제 완화, 4대강 사업 등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정책조정 기구 축소로 균형발전 정책 추진동력이 약화되었다. 박근혜 정부(2013~2017.5월) 시기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기초생활권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고, 시군구간 연계를 통한 생활권 중심 정책으로 취약지역생활여건조사업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등 주민 체감도를 제고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생활권 문제 중심의 미시적 접근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성장동력 창출과 광역적인 발전전략이 미흡하고, 지역산업 및 일자리 문제 등에 소홀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균형발전의 3대전략으로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사람), 방방공공 생기도는 공간(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산업)을 제시하였으며,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추진, 지역혁신체계 개편, 국민소통 강화 등 자치분권, 거버넌스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분권(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추진), 포용(국가균형발전체계의 발전적 복원), 혁신(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주요 가치로 설정하고,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 감소지역을 거주감소지역으로,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혁신, 지역 유류자산의 경제적 자산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실행력 제고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균형발전 상생회의 신설,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조직정비,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등 예산지원을 강화시켰다.

전라북도 균형발전 정책

전라북도는 낙후도가 심한 동부권 6개 시군(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부권특별회계를 도입하고 시군별 식품과 관광 부문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식품분야 사업은 동부권 시군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한 식품자원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관광분야 사업은 역사·문화·식품·산림·수변 자원 등에 기반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부권특별회계 사업('11년~'20년)>

구분	식품 분야	관광 분야
남원시	허브클러스터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남원전통상가 조성 등
진안군	홍삼클러스터	산약초타운, 마이산로하스레저타운, 마이산북부개발 마이산도탈관광체험센터, 마이산자연치유신비체험 등
무주군	천마클러스터	금강레포츠타운, 반딧불 산림체험숙박,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태권도주변 관광활성화 등
장수군	오미자클러스터	의암공원테마숲, 말산업클러스터, 호스팜랜드조성 와룡자연휴양림 관광기반구축, 포니랜드조성, 장수가야유적 정비 등
임실군	치즈클러스터	사선대관광지, 치즈 팜투어벨트, 섬진강에코뮤지엄 등
순창군	장류클러스터 건강장수식품클러스터	섬진강향가관광개발, 강천산관광벨리, 강천산 야간명소화수 체험센터 건립, 쉼랜드 관광휴양촌 조성 등

민선 7기에는 공약으로 총 11개 분야에 101개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균형발전과 관련된 공약은 '다르지만 고르게 발전하는 전북' 분야에 총 10개 정책이 제시되었다. 군산시의 지역경제위기 대응과 관련된 신성장 동력화 사업과 낙후도가 심한 시 지역 일부와 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동부권특별회계의 운영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예산을 매년 300억원에서 36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동부권특별회계 지원 대상을 식품과 관광 중심에서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농업, 농산물가공업 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화사업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권역별 특성 및 과제

중추혁신도시권(전주·익산·완주)은 국책연구기관의 전북본부와 R&D 기능을 담당하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이 집적되어 있으며, 특히 탄소융합기술원과 복합소재기술연구소 등으로 융복합 기반의 산업기반이 양호하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따른 전국 최고 수준의 농생명 관련 R&D 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농생명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추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백제 및 조선 시대 문화 등 전통문화 자원과 유무형 문화자원이 풍부하여 문화자산 콘텐츠화를 통한 발전 기반이 양호하고 생활문화 관련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서남권(정읍·고창·부안)은 생명공학 및 바이오 관련 연구소가 입지해 있으며, 농식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농생명과 연관된 종자와 미생물산업, 해양수산 관련 R&D 센터가 입지해 있어 농수산식품 산업 육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및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세계유산이 가장 많은 권역으로 역사문화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발전전략이 요구되며, 지리적 입지로 인한 해양 및 해안자원이 풍부한 권역이다. 또한 국·도립공원, 평야, 연안 등의 산·물·바다와 관련된 환경 자원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권역이다.

동북권(진안·무주·장수)은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한 홍삼, 산머루, 천마, 사과 등 농식품 관련 분야 중심의 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진안군은 마이산, 무주군은 태권도와 반딧불, 장수군은 승마와 가야 유적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콘텐츠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 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으로 산림 관련 연구소, 연수원, 훈련원과 휴양림 등의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동남권(남원·임실·순창)은 동북권과 유사하게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한 허브, 치즈, 장류 등 지역 농식품 분야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남원시의 화장품, 순창군의 발효미생물 및 건강장수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 남원시는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 임실군은 사선대 및 오수의견 관광지, 순창군은 섬진강 등 역사문화 자원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에 주력 중이다. 또한 산림자원으로 지리산국립공원과, 국립공원인 강천산과 성수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관광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새만금)은 자동차융합기술, 건설기계부품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R&D와 연계된 공공기관과 차세대 에너지산업의 핵심이 되는 핵융합 및 플라즈마 관련 기관들이 입지해 있으며, 농식품 관련 자원으로는 농생명 과 연계된 종자, 인력 양성 기관과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에 집적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자원과 내륙 호소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개발에 주력 중이다.

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위해서는 권역이 보유한 가용자원의 융복합과 특화전략을 도모하는 혁신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부권특별회계를 지원받고 있는 동부권은 특별회계에 지원 대상이 식품과 관광으로 명시되어 6개 시군이 동일하게 식품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은 식품 관련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및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자원의 융복합 등에 기반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권역이 보유한 가용 자원의 융복합을 통해 혁신가치를 제고시키고 각 권역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활용해 특화전략을 도모하는 혁신성장이 필요하며 모든 지역에서 신산업 등의 유사 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지역이 보유한 비교우위 자원과 지역에 집적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문화 콘텐츠 및 관광활성화 등의 전략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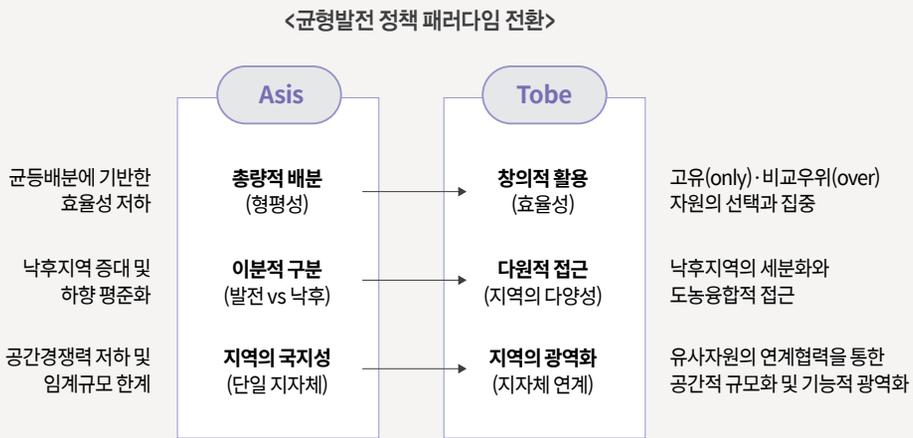
또한 개별 시군의 특화발전 외에도 광역화·규모화를 통한 공간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동부권특별회계로 추진중인 관광사업은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시군의 개별 관광사업 추진으로 관광목적지로서의 매력 부족, 체류시간 연장 한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 규모가 적어 발전기반이 미흡하고 인구감소가 가속화되

는 상황에서 개별 시군의 접근보다는 광역화 전략이 중요한 과제이다.

3. 균형발전 및 5권 5축 발전 방향

지역의 균형발전 방향

저성장기의 정책 패러다임이 대두됨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 또한 과거의 국지적·획일적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발전지역 또는 낙후지역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시켜야 하며 공간·자원 간 연계를 기반으로 비교우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특화발전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의 균형발전은 자원의 총량적 배분(형평성)에서 자원의 창의적 활용(효율성), 이분적 구분(발전지역 vs 낙후지역)에서 다원적 접근(지역의 다양성), 지역의 국지성(단일 지자체)에서 지역의 광역화(복수 지자체)를 고려해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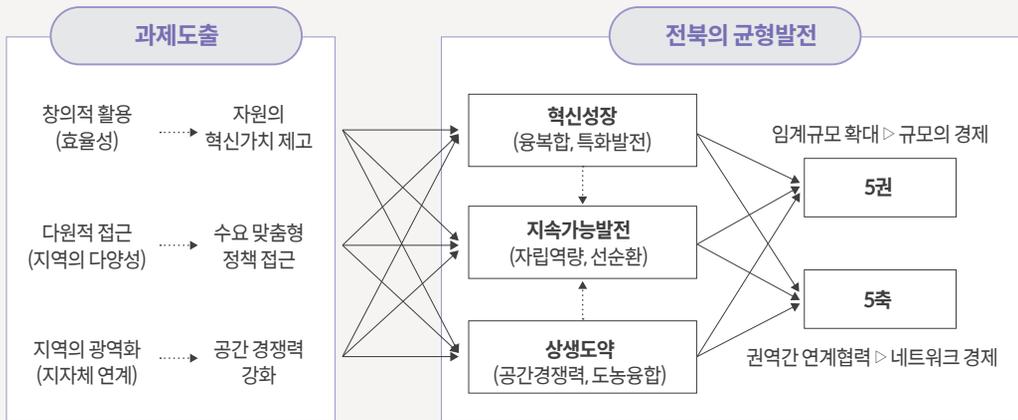


자원의 창의적 활용은 모든 지역이 산업, 농식품, 문화관광 등의 부문에서 유사한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이 보유한 고유자원(only)과 비교우위자원(over)의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의 특성이 창의적으로 구현되는 성장을 의미한다. 다원적 접근은 낙후지역이 처한 상황들이 서로 다르고 각 지역이 보유한 자원 또한 다르기 때문에 낙후지역 유형을 세분화시킨 정책적 접근과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상호 연계되고 보완될 수 있는 도농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의 광역화는 낙후지역의 입지와 자원 등에서 비롯되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유사자원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간적·기능적 광역화가 중요하다.

국가균형발전 개념과 자원의 창의적 활용, 다원적 접근, 지역의 광역화 등 지역차원의 균형발전 방향을 고려한 전국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은 혁신성장, 상생도약, 지속가능발전으로 설정하였다. 혁신성장의 개념은 자원의 창의적 활용은 궁극적으로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경제·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이다.(기획재정부, 2019) 즉, 지역이 보유한 자원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자원의 융복합과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상생도약은 낙후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전지역과 연계한 외생적 수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어야 하며 발전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한 전후방 산업 육성 등을 고려한 상생발전을 통해 도약하는 개념으로 공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낙후지역의 자립역량이 증진되고, 각 지역 및 권역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발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의 활력이 창출되는 개념이다. 즉, 혁신성장이 촉진되고 지역 간 연계·협력 기반의 상생으로 지역의 차이가 지역의 차별화 및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권역과 축을 활용한 선순환적 균형발전이 요구된다.

<전북의 균형발전 방향>



5권 5축 발전 방향

정책 접근을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권역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인구, 산업, 자본 등 취약한 경제규모를 확대시키고 공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권역 내 자원의 융복합과 특화발전에 기반한 혁신성장과 권역 내 인접 시군 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상생도약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임계 규모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경제현상을 의미하며, 최적규모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인구 3만 미만의 동부권 지역의 경우는 최적규모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계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

권역은 자원활용, 정책방향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합적, 내부지향적인 반면 축은 연속적, 외부지향적 성격의 개념으로 연계·협력을 통한 권역 간 연결성 강화를 의미한다. 권역 내 특화 기능들 중에서 권역 간 협력을 통해 혁신성장 규모와 역량을 강화시키고, 상호 시너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연계시켜 상생도약 및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권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4. 5권 특화 및 5축 연계 전략

5권 목표 및 전략

5개 권역의 목표 및 전략은 권역의 비교우위 자원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을 통해 나타나는 권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권역 내 지역 간 유사성이 높은 공통의 부문과 권역 간 상호 연계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산업경제, 농식품, 문화관광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고려하여 구상하였다.

<5권 목표·전략>

구분	목표	전략
중추혁신도시권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혁신·상생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소재 및 농생명산업 고도화 • 전통·생활문화 확산 • 성장거점 연계 발전
서남권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서해안 문명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농수산식품산업 육성 • 해양·역사문화 경제 선도 • 서해안 연계교통망 구축
동북권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강소지역 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 식품산업 강화 • 경제·복지 산림 육성 • 지역간 연계 교통망 확대
동남권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건강·생태 유토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스케어산업 특화 • 山水 생태 거점
새만금권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	동북아 경제 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신산업 요람 • 해양관광 진흥 • 글로벌 SOC 확충

중추혁신도시권은 혁신·상생발전을 목표로 융복합·소재 및 농생명산업 고도화, 전통·생활문화 확산, 성장거점 연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권역 내 집적된 양호한 산업 여건의 혁신을 통한 성장과 자원 연계를 통해 주변 권역과의 상생발전을 견인하는 중추기능 수행이 요구된다.

서남권은 서해안 문명 거점을 목표로 바이오·농수산식품산업 육성, 해양·역사문화 경제 선도, 서해안 연계 교통망 확충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역사문명, 생태문명, 정신문명 등의 발굴과 보존에 기반한 현대사회의 생활화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문명의 거점 기능 수행이 중요하다.

동북권은 강소지역 창조를 목표로 고부가 식품산업 강화, 경제·복지 산림 육성, 지역간 연계 교통망 확대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유출, 지역활력 쇠퇴 등에 대응하여 컴팩트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활력 창출을 통해 소생하는 강소지역 지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동남권은 건강·생태 유토피아를 목표로 헬스케어산업 특화, 건강·생태 거점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권역 내 비교우위를 확보한 건강 자원과 연계된 산업을 육성하고, 산림 및 수변 자원을 기반으로 생태힐링 거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권은 동북아 경제 허브를 목표로 미래 신산업 요람, 해양관광 진흥, 글로벌 SOC 확충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미래 신산업의 전전기지도 및 공학·항만 등 글로벌 도약을 위한 SOC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구분	과제	주요 사업
중추 혁신 도시권	탄소 융복합 소재산업	한국탄소진흥원 설립, 탄소융복합 소재산업기술 자립화 기반 구축, ICT 융복합 드론 소재부품 생산거점 조성 등
	신산업	연기금·농생명 금융타운 조성, 전북권 수소 선도도시 조성, 수소상용차 생산거점도시 및 산업생태계 구축, 전력반도체 소재기반 구축, 디지털 덴탈 3D 프린팅 산업 육성 등
	농생명산업	국가동물케어클러스터 구축, NFC 2단계 산단 및 복합푸드랜드·복합문화센터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정편의식(HMR) 활성화 지원, 스마트 농업농촌 인적자원 교육센터 건립 등
	전통·생활문화	조선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센터, 한옥진흥원 설립,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설립, 글로벌 청년야시장 조성, 생태명명원 등
	성장거점연계발전	출판산업복합클러스터, 전주~완주 혁신도시 대중교통 환승센터,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서남권	바이오산업	천연물 기반 바이오 소재산업 거점 조성, 식물자원 소재연구센터 설립, 농축산 마이크로바이옴 활용시스템 구축 등
	농수산 식품산업	농생명 첨단부품소재 국가산단 조성, 복합미생물산업화 기반 구축, 스마트 축산 ICT 시범 사업, 해양수산 기능성소재 사업화 지원센터 조성,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바지락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반 조성 등
	해양·역사문화 경제	국가어항 개발 및 환경개선, 어촌·어항 현대화, 전라유학진흥원, VR·AR 동학농민혁명 체험역사관, 구절초 테마공원 국가정원 조성, 국립 습지 생물자원관 조성 등
	서해안 연계 교통망	새만금 물류교통망 동부내륙국도, 새만금 물류교통망 노을대교, 서해안(새만금~목포)고속철도 건설 등
동북권	고부가 식품산업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약용작물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레드푸드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등
	경제·복지 산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순환도시 조성,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임산물 로컬푸드 shop in shop, 청정임산물 특화마을 및 로컬센터 조성, 국토 동서화합 상생공원, 백두대간 산악형 정원 조성, 두루두루 산촌체험벨트 구축, 전북형 산림레포츠 시범모델 조성 등
	지역간 연계 교통망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상전~동향(국지도 49호선) 2차로 개량, 주천~동상(국지도 55호선) 2차로 개량, 진안~성수1 국도(30호선) 건설 등
동남권	헬스케어 산업	파마바이오텍스 산업화 기반 구축, 전북형 발효효소산업 육성,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펫푸드 산업 플랫폼 구축, 고령사회대비 노화연구센터 등
	농식품산업	장류원료 가공센터 설립, 산나물 클러스터 조성, 유기농산업서비스지원단지, 1농업 단지 조성, 향토건가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등
	건강·생태 거점	국립 스마트 치유농업원 조성, 지리산 렛츠런 파크 조성, 지리산 국립산림교육문화센터, 지리산 야생허브 국가정원 조성, 섬진강 로맨틱 투어벨트 조성,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새만금권	미래 신산업	그린 수소 융복합 실증단지, 대형 핵융합 실증로 구축, RE100 산업융복합 시범단지, AI 기반 상용차 자율주행 연구기반 구축,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지능정보 농업 서비스 플랫폼 구축, 중자 고품질화 핵심기술 연구기반 구축 등
	해양관광	국립 현황해권 해양박물관, 새만금 R&D 테마파크 조성, 새만금 캠핑레저 관광거점, 새만금 아트센터 및 아리울 레이싱파크 조성, 한중 문명교류원 등
	글로벌 SOC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신항만 및 배후단지 건설,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서해안(새만금~목포)고속철도 건설, 새만금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 등

5축 연계 전략

5축의 발전방향은 5개 권역의 목표와 전략을 고려하되 권역 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능과 인프라, 권역 간 주요기능 중 상호 연계를 통해 기능을 강화시키고 시너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개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동서상생 축(중추혁신도시권, 새만금권, 동북권)의 연계 전략은 성장거점 확산 및 연계 벨트, 국토 동서내륙 상생발전 벨트로 혁신도시의 성장효과를 새만금권과 동북권으로 확산시키고, 새만금 개발효과를 중추혁신도시권과 연계시켜 시너지 극대화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새만금권~중추혁신도시권~동북권~대경권으로 연계되는 국토 내륙의 상생발전 벨트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

<동서상생 축 연계 전략 및 주요 자원>

연계 전략	주요 자원
탄소 융복합 산업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산업혁신거점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가탄소산업단지,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캠틡종합기술원, 효성 탄소산업융합거점 : 지능형이동체, 해양기기, 신재생에너지단지
지능형 농건설기계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혁신거점 : 농촌진흥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 IT융합농기계종합기술지원, 캠틡종합기술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기계생산거점 : 첨단농기계클러스터, LS엠트론, 대창엠코, 대성디에스아이 등 건설기계생산거점 :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두산인프라코어
ICT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콘텐츠 서비스 혁신거점 :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간정보연구원,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지원센터, 소리창작원 융합서비스 리빙랩 거점 :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스마트 아틀리에, 새만금캠핑레저단지 등
동서 녹지수변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서 생태거점 : 새만금 수변도시 및 수목원, 생태문명원, 백두대간 산악형정원 동서 생태 네트워크 : 만경강, 금남·호남정맥
농생명 후방산업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생명 R&D 거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농생명 후방산업 거점 : 진한홍삼연구소, 무주천마연구소, 장수식품사업클러스터사업단

내륙 혁신성장 축(중추혁신도시권, 새만금권, 서남권, 동남권)의 연계 전략은 농생명 융합 및 R&D 벨트로 종자 및 미생물 R&D 강화, 전북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등 농생명 관련 전후방 산업들의 융복합화와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R&D 기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내륙 혁신성장축 연계 전략 및 주요 자원>

연계 전략	주요 자원
중자 R&D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생명중자거점 :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 방사선육종거점 : 첨단방사선연구소, 방사선육종연구센터 • 민간육종거점 : 민간육종연구단지, 중자산업진흥센터
농생명 스마트팜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핵심거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스마트팜 실증거점 : 스마트팜혁신밸리, ICT 스마트축산 • 스마트 수산거점 :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생명자원센터,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펫푸드산업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펫푸드 RD 거점 : 대변은행(마이크로바이옴),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센터 • 펫푸드 생산 거점 : 국가식품클러스터, 오수농공단지 • 펫푸드 복합 거점 : 반려동물테마파크, 반려동물 콤플렉스
미생물융합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용 미생물 거점 : 농촌진흥청,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 농축산 미생물 거점 : 농축산용미생물육성지원센터, 한국생명연 전북분원, 안전성평가 연구소 • 발효 미생물 거점 :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장류연구소, 대변은행

동부 휴양힐링 축(동북권, 동남권)의 연계 전략은 국민적 산림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 기반 휴양·레저 활성화에 집중한 동부권 산림 휴양·힐링 및 레저 벨트를 추진해야 한다.

<동부 휴양힐링 축 연계 전략 및 주요 자원>

연계 전략	주요 자원
산림 휴양힐링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휴양 거점 : 전라북도 자연환경연구소, 지덕권산림치유원, 그린 장수 치유의 숲, 태조 희망의 숲, 강천산관광단지
산림 문화레저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문화·레저 거점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태권도원오험체험단지, 산림레저스포츠타단지, 백두대간산악형정원, 목재문화체험장, 국립산림교육문화센터 • 산림 문화·레저 패스라인 : 두루두루 산촌체험, 동부권 산촌주말농장(귀산촌 삼시세끼)

서남부 건강의료 축(동남권, 서남권)은 권역 내 건강과 관련된 자연환경과 주요시설 및 정책 등을 활용하여 건강·의료 산업, 문화 등의 기능 특화를 중심으로 건강·의료 특화 벨트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서남부 건강의료 축 연계 전략 및 주요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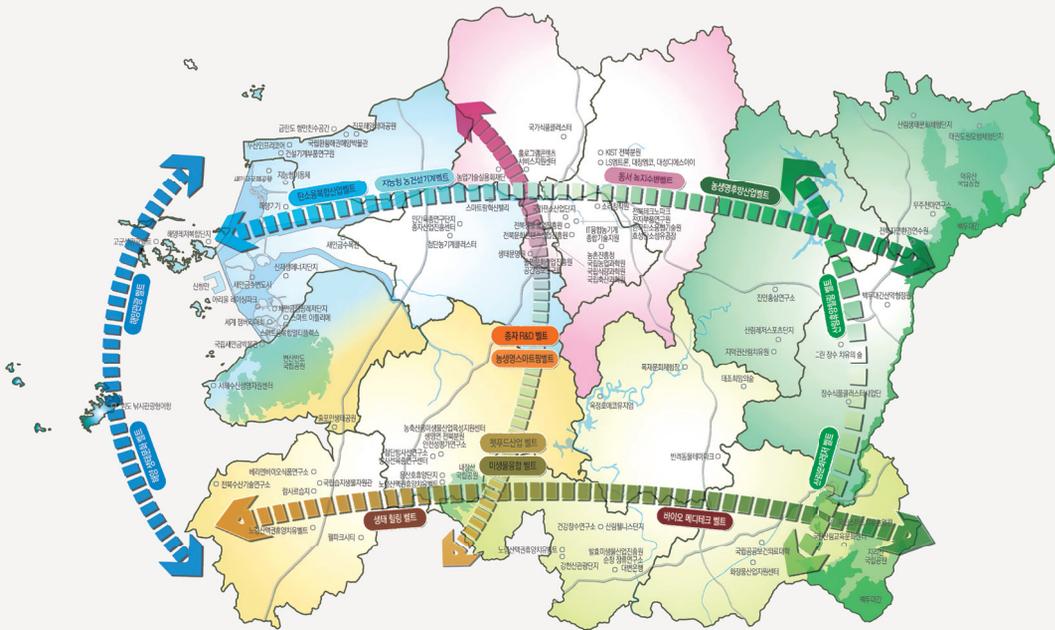
연계 전략	주요 자원
바이오 메디테크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 MT R&D 거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첨단방사선연구소 • 바이오 MT 실증 거점 :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화장품산업지원센터, 순창장류연구소, 베리엔바이오식품연구소 • 의료관광거점 :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웰파크시티
생태힐링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생태 휴양 거점 : 옥정호 에코뮤지엄, 섬진강르네상스, 용산호휴양단지 • 산림 휴양 거점 : 국립스마트치유농업원, 산림웰니스단지, 노령산맥권휴양치유벨트

해양레저 축(새만금권, 서남권)은 해양 및 해안 자원을 보유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생태 관련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화, 해양레저 등의 관광 활성화를 통한 해양 생태·레저 벨트에 주력해야 한다.

<해양레저 축 연계 전략 및 주요 자원>

연계 전략	주요 자원
해양관광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생태 거점: 람사르 습지, 국립습지생물자원관, 줄포만 생태공원 해양문화 거점: 새만금수목원, 새만금박물관, 고군산 명품마을, 국립환경해군해양박물관, 금란도 향만천수공간, 진포해양테마공원
해양생태문화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 레저관광 거점: 위도 낚시관광형 어항, 아리울 레이싱파크, 대울저수지 관광자원개발 해양 융복합관광 거점: 고군산관광벨트, 세계잼버리대회, 해양레저복합단지

<5축 연계 전략>



<참고문헌>

고영선(2008),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한국개발연구원.
 전복연구원(2010), 동부권특별회계 운영방안 연구, 전복연구원.
 국토연구원(2017),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발전계획, 국토연구원.
 균형발전위원회(2018),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균형발전위원회(2019), 제1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도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